

윤애영은 80년대 후반에 미술수업을 하고 90년대 등장한 영상세대에 속한다. 한국에서 회화 수업을 받고 파리의 국립미술학교에서 관화를 전공하며 추상적이고 표현적인 화면을 탐구하던 그녀는 92년 한 비디오 전시와 퍼포먼스의 현장에서 복합적인 감정과 기억을 재구성하며 무의식의 흐름에 형태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매체로 전격적인 전환을 단행하였다. 독학으로 촬영, 편집, 음향 기술을 습득하였으나 2년 후부터는 여러 비디오 웨스티발에 참가할 정도로 비디오 테크닉을 빠른 속도로 소화했다.

윤애영의 작업은 두 단계를 걸쳐 발전하였다. 93년부터 5년간 조+윤 (cho+yun)의 이름으로 진행한 공동 작업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와 그 한계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비디오 설치 작업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99년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꿈과 현실이 뒤섞인 설치작업에 주력하였다. 두 시기의 작업을 연결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누드 이미지로 초기에는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으나 99년 이후에는 차츰 꿈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꿈 속에서 깨어난 것 같은 몽상적인 신체이다.

윤애영은 현실과 평행한 보이지 않는 여러 세계에 대한 직감을 작품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 속에 드러내 보이는 수단으로 비디오를 사용한다. 무의식이 기억의 단편들을 조립하여 욕망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예감조차 담고 있는 꿈을 만들듯이, 현실에서 채집한 이미지들을 혼합하여 하나의 백일몽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시간이 공존하는 초현실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자신을 탐구하고 발견해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질 <꿈>은 제목 그대로 작가가 꿈꾼 “새처럼 물고기처럼” 중력의 조건을 자유로이 벗어난 풍경을 다양한 영상 편집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시간적 전개를 가진 이야기 대신 무의식의 흐름에 형태를 부여한 작품이다.

작가의 대표작이 된 <비밀의 정원>은 99년 이후의 관심을 종합적으로 실현한 대형 설치로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 초청전에서 처음 보여졌다. 그 이후 쾰른의 루브르의 러시아 국립미술관, 프랑스 쟁퐁스 아트센터, 바스 노르망디 현대미술센터에서 재연되었다.

블랙 라이트의 푸른 빛에 침잠한 공간 속에 꽃과 나무로 정원을 꾸미고 그 속에 다양한 방식의 비디오 프로젝션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환영처럼 어른거리게 한 <비밀의 정원>은 작가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풍경으로 만든 작품이다. 전자 영상과 정원을 결합한 전례는 백남준의 <TV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 70년대 초반 일반 가정에 보편화되기 시작하던 칼라 TV 모니터를 실제 화초들과 뒤섞어 놓아 현란한 색과 울동의 전자 이미지와 자연을 만나게 하며 현대인에게 제2의 자연이 될 전자영상을 예고한 작품이었다. 이와는 달리 윤애영의 정원은 자연과는 무관한 흙과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조 정원이다. 거기에는 녹색 대신 창백한 형광의 백색만이 있으며 정신적 풍경의 은유로서 조성된 정원일 따름이다. 간간히 들려오는 바람과 물 소리만 살아있는 자연을 환기시킨다. 이 정원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나무는

작가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한다. 가지에는 투명한 스크린 들이 걸려있고 그 위에는 어슴프레한 기억과도 같이 비디오 영상들이 너울거린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의 상징적 사고체계는 우뚝 솟은 나무와 영혼을 연결시켰지만 특히나 한국에서 나무는 전통적인 영혼의 거처이다. 그 영혼의 나무에 이르는 길에는 백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여기 저기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 지금의 나만이 유일한 나의 존재라는 것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윤애영은 장자의 ‘호접몽’을 인용하면서 여러 공간과 여러 시간에서 동시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꿈을 꾸다. 서로가 서로의 꿈을 꾸다는 생각을 잊지않고, 지금과 그때, 여기와 저기에 남겨진 흔적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통합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일까? 작가는 그것조차 환영이라고 믿는 듯하다. 비디오 영상으로 작업하면서 그가 발견한 진리는 존재와 그림자 (영상) 사이에는 한 줄기 빛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며 늘 암흑 (혹은 빈공간)에서 와서 암흑(혹은 빈공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허무주의에 빠져 버리는 대신 과정으로서의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현재 진행의 삶이 유일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다른 공간과 시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삶들을 상상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다.

규모상 이번 뉴욕 전시에서 보여질 수 없는 <비밀 정원>은 설치 현장의 사진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대신 <비밀 정원>과 같은 맥락에서 제작된 <떠도는 섬>은 작은 규모이지만 윤애영이 추구하는 무의식의 풍경, 나아가 자의식에 도달하는 풍경을 보여줄 것이다.

Catalogue Paris-New York, 2005

Kim Airyung 김애령